

육계농가 청소 및 방역 수준 개선점 많다.

□ 취재/김재서 기자

조사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 등지의 총 86개 농가에서 이루어 졌으며 86개 농가를 규모별, 계사별로 분석하여 보면, 농가규모는 3만수 미만이 전체의 32%로 28농가, 3만수에서 5만수 미만이 50%로서 43농가, 5만수 이상이 17%로서 15농가이며, 3만수 미만의 평균사육수수는 2만 2천수, 3만수 이상 5만수 미만은 3만 6천수, 5만수 이상은 6만 1백수로 나타났다.

계사 형태의 유형은 개방계사가 전체의 51%로 44농가, 발효계사가 34% 29농가, 무창계사 15% 13농가로 평균사육수수는 개방계사 3만 3천수, 발효계사 3만 5천수, 무창계사 4만 9천수이다. 설문조사 분석은 총 86개 농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계사별, 규모별에 따른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았다.

올 해의 경제불황은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더욱이 엘니뇨와 라니냐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철저한 사양관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가 침체되었다고 닭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위생수준이 저하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산물인 닭고기의 생산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가 위축되어 있을 때의 식품 안전성 문제는 예기치 않은 큰 소비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출하 후의 계사 소독 및 방역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육계농가의 위생 및 방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농가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본회 회원 및 일부 계열업체 계약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출하 후 계분처리 실태

육계 출하 후의 계분처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매회 처리 한다가 44%, 3~5회 사용 후 처리 21%, 발효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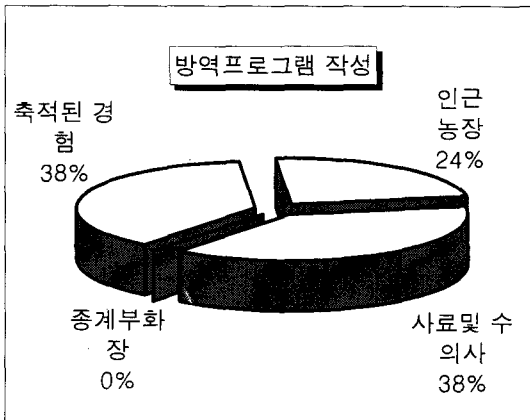
33%로 발효계사 농가의 계분 이용횟수는 평균 4~6회이다.

발효계사를 제외한 많은 수의 농가가 계분을 매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질병 발생시에 계분처리를 한다고 답한 농가도 있어 계분 상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농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다.

계분을 처리한 후에는 60%의 농가가 소독 후 건조한다고 답하였고 생석회 도포가 28%, 불소독, 양잿물 등을 이용하는 농가도 소수 있었다.

2. 방역 프로그램의 작성

농가에서 방역 프로그램은 누구와 상의·협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료회사 직원 및 수의사·계열업체 지역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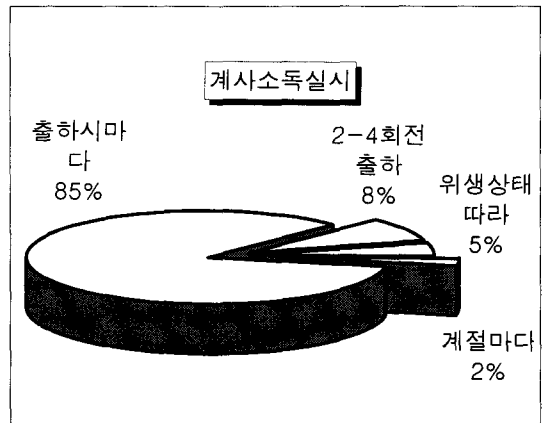


자라고 답한 농가가 전체의 38%로서 가장 많았고 그의 본인의 경험이나 인근 농장과 상의 한다는 농가가 각각 38%, 24%

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육계 기초방역관리에 있어 많은 수의 농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위농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계사 소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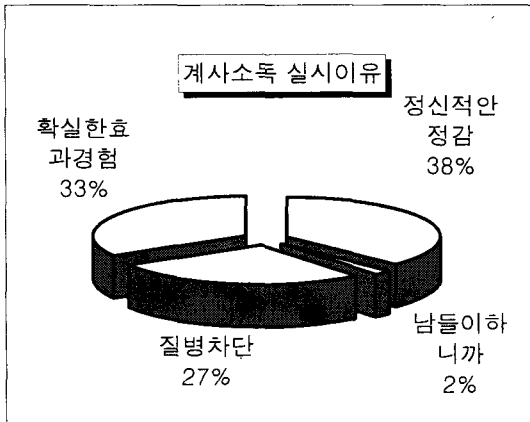
계사를 소독하는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대다수인 85%의 농가가 출하시마다 라고 답했으며 15%의 농가는 1년에 2~3회 정도 환절기 등에 계사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방법에는 68%의 농가가 고압 또는 수동분무기로 염소소독제, 페놀계 소독제, 포르말린, 과망산칼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훈증소독 16%, 연막소독 12%, 안개분무 4%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들 방법들을 농가사정과 효과에 따라 함께 사용하는 곳이 많았고, 훈증소독방법은 무창계사 농가의 58%가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무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는 개방계사의 경우 82%, 발효계사 65%, 무창계사 42%로 나타났다.

계사 소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정신적인 안정감이 38%,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여서가 33%, 특정질병 차단이 목적이라고 답한 농가가 27%로서 많은 수의 농가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계사

계사소독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질병에 대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답에는 주로 ND, 감보로, IB 등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들이 대부분이었고 계사소독 등 방역에 의해 효과를 경험한 질병 역시 이들 전염성 질병으로 나타나 적절한 방역과 소독은 질병에 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은 계사 형태에 따라 무창계사 25%, 개방계사 31%, 발효계사 41%였으며, 사육규모별로는 3만수 미만인 29%, 3~5만수 35%, 5만수 이상이 56%로 나타나 사육규모가 클수록 확실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4. 계사시설에 대한 소독

급수 시설인 급수탱크, 파이프, 급수기에 대한 소독 횟수는 출하시마다 72%,/년 3회 정도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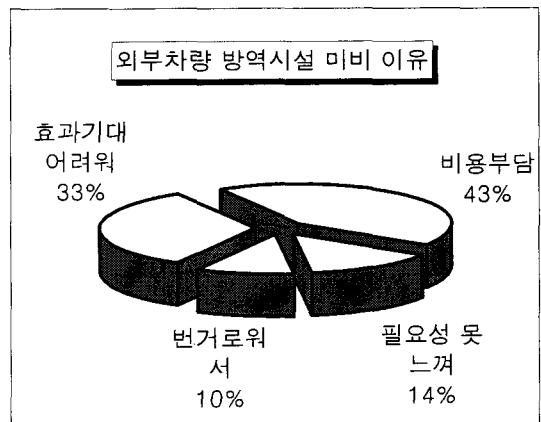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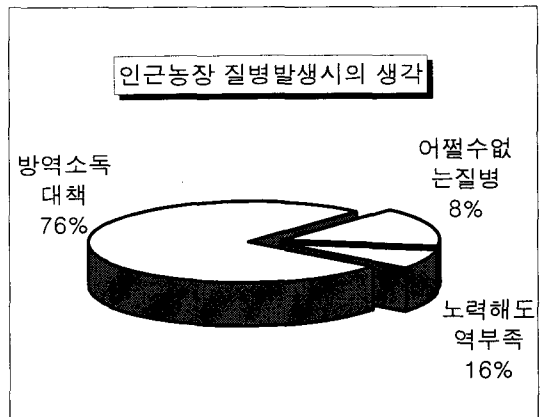
%, 문제 있다고 판단사가 14%로 응답했으며 파이프 등에 대한 음주소독은 보통 직수를 이용하여 영양제나 약제 투약 후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웬이나 열풍기 등의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은 계사청소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5. 질병발생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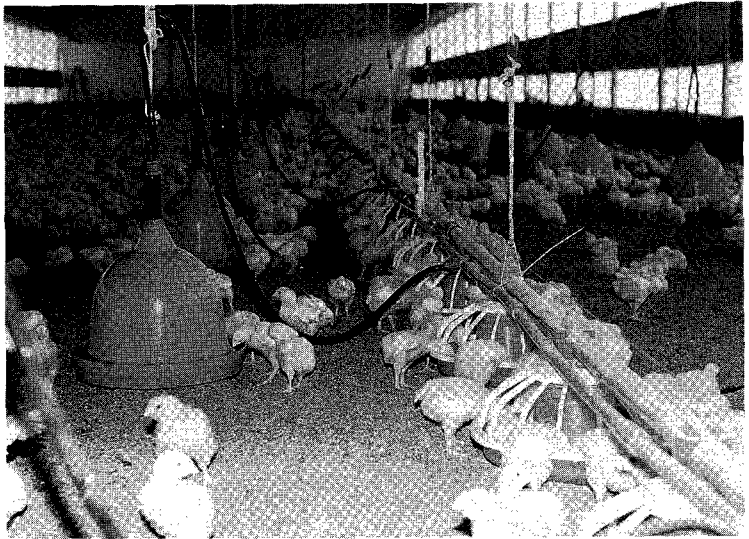
인근 농장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방역과 소독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답한 농가가 총 86개 농가 중 76%이고, 그외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다 8%,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역부족이다 16%로 질병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많은 수의 농가가 질병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차량 방역시설



외부 차량 방역시설은 총 86개 농가중 74%의 농가가 없다고 답해 대다수의 농가가 농가여건상 차량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비용부담 43%,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3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4%, 번거롭다 10%였고, 비용부담이라고 답한 농가를 사육규모별로 살펴보면 3만수 미만 36%, 3~5만수 39%, 5만수 이상 55%로서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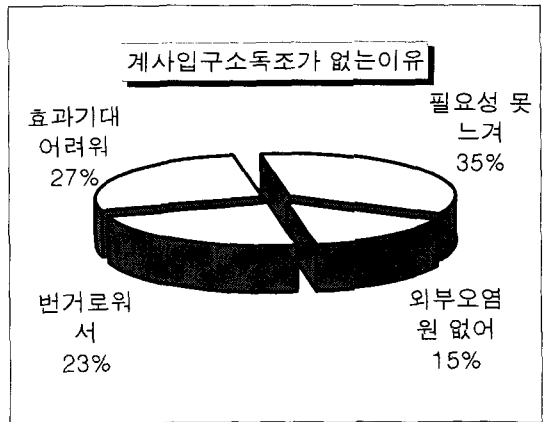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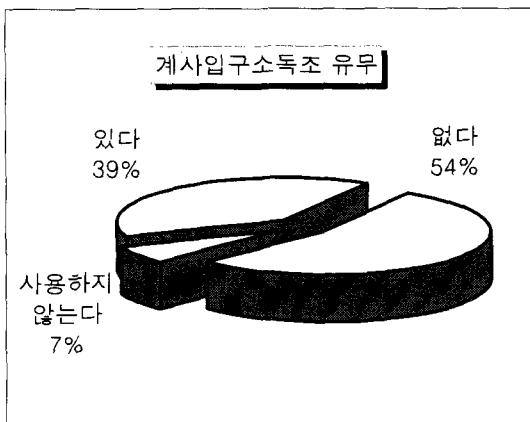
7. 계사입구 소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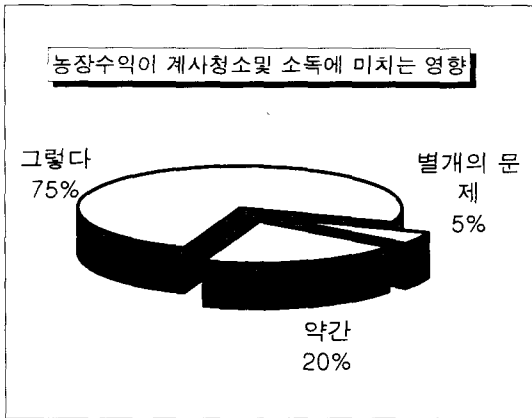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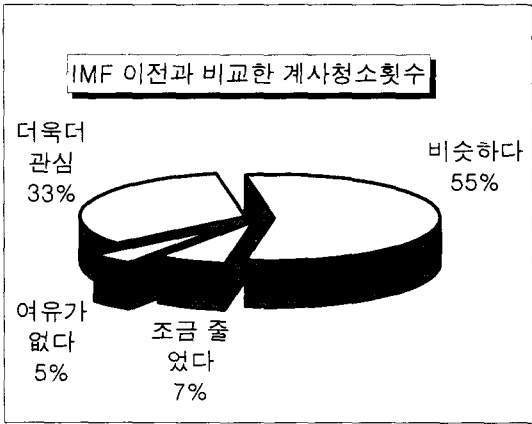
계사 입구에 소독조를 구비하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86개 농가중 61%의 농가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35%, 효과가 없어서 27%, 번거롭다 23%, 특별한 외부오염원이 없어서 15%로 답하였고 소독조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계사별로 무창계사 92%, 개방계사 43%, 발효계사 22%로서 계사 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8. 농가 여건(수익)이 계사 청소나 소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계사 청소 및 소독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농가가 전체의 88%를 차지한 반면, 농장 수익이 방역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여 그렇다 라고 답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농가가 95%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가 어려운 농장경영 가운데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장 수익이 방역관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계사형태나 사육규모에 의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사육수수 3만수 미만

해보면 전염성 질병 가운데 대장균증, 살모넬라 등의 세균성 질병과 ND, 감보로, IB, 마렉 등의 바이러스 질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은 난계대 문제와 약제 내성등으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육계에 있어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농가에게 가장 기본적으

서는 89%, 3~5만수에서는 93%, 5만수 이상에서는 100%의 농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규모가 커질수록 농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결 론

'97년의 수의 과학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의뢰된 국내질병 발생동향을 살

로 요구되는 것이 계사환경의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사양가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보다 효과적인 소독과 질병예방을 위해 농장이 가진 특성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겠다.

또한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은 오래전 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이며, 본 설문조사에서 초생추 구입시에 병아리에 대한 안내나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한 농장은 9%에 불과하여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상기온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가운데 환절기를 앞두고 호흡기 등 질병발생이 크게 우려됨으로 철저한 계사 환경관리와 위생관리에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설문에 적극 협조해준 분회 및 계열업체 농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양계**

**알 먹고 키자랑
닭 먹고 힘자랑**